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	http://www.motie.go.kr
2018년 7월 1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12.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			
배포일시	2018. 7. 11.(수)	담당부서	산업일자리혁신과
담당과장	최연우 과장(044-203-4220)	담 당 자	차세운 사무관(044-203-4224)

산업부 차관, 철강산업 현장방문

-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업계 노력 당부 -

□ **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**은 7. 12.(목)에 ㈜동국제강 인천공장을 방문해, 7. 1.부터 시행중*인 **노동시간 단축**(주68→52시간) 관련 동향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.

* 노동시간단축 적용 시기: **(300인 이상) '18.7.1**, (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`19.7.1)
(50~300인미만) '20.1.1, (5~50인미만) '21.7.1

< 현장방문 개요 >

○ 일시/장소: 7.12(목) 09:30 / ㈜동국제강 인천공장
○ 참석자: 이인호 산업부 차관, 동국제강 인천공장장 및 사내협력사 대표 등
○ 논의내용: 노동시간 단축 관련 업계 대응 현황, 철강업계 주요 현안 등

□ 이인호 차관은, **주 52시간 시대**의 개막이 우리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**선진 기업으로의 도약**도 촉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, 업계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**적극 동참**할 것을 당부했다.

○ 다만, 이인호 차관은 주 52시간의 정착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, **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**에 대해 동국제강과 사내협력사 관계자와 의논했다.

□ 곽진수 동국제강 인천공장장은, 동국제강의 경우 '07년부터 생산라인 **4조 3교대제**를 시행하였으며, 지속적인 **근무문화 개선** 노력*을 통해 **주 52시간 이내 근무시스템이 이미 정착**되어 있다고 설명했다.

* 연차 사용 독려, 팀장급 솔선수범하에 휴가 사용 활성화, 실근로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

○ 다만, 일부 **사내협력사**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우려를 표하던 점을 감안,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당사의 **'동반성장 지원금'**을 활용해 **인건비 등을 지원**하고 있다고 밝혔다.

* 동국제강은 동반성장 지원금('18년 약 100억원)을 협력사들에 제공,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

○ ㈜효신 등 동국제강 사내협력사 관계자는,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**교대제 개편**(3교대→4교대제)과 **신규 채용**(근로자수 11%↑)을 실시하는 데에 상기 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이인호 차관은 동국제강과 사내협력사들의 사례를 **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**을 통해 주 52시간을 정착시켜 나가는 **모범사례로 평가**하면서,

○ 정부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의 **신속·원활한 산업현장 안착**을 위해 **총력적으로 지원**할 계획*임을 강조했다.

*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('일자리함께하기 사업' 확대·개편)
*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(6개월)에는 기업 계도 활동에 집중
*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방안(단위기간 확대 등) 논의

□ 한편, 동국제강과 사내협력사 관계자는 미국·유럽연합(EU)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**수입규제를 확산**하고 있는 상황에 **우려**했고,

○ 이인호 차관은,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합동 대책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**긴밀히 소통하며 국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**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차세운 사무관(☎ 044-203-42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12 09:27:35